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제주은행 문의: 1588-0079(7번)



한리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E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064)745-8884

道 하반기 정기인사 규모 '축각'

국장급 8명 공로연수·명퇴 '중폭' 교체 전망
안전실장 임명이 변수... 4급 승진 인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임박하면서 국장급 교체 폭 등 인사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일 인사예고하는 올 하반기 인사일정에 따라 지난 26일 5급을 제외한 승진심사 인원을 공개했다. 4급 승진인원은 직무대리 3명을 포함해 ▷행정(행정) 11명 ▷농업(일반농업) 1명 ▷복지 1명 ▷해양수산(일반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1명 등 17명이다. 행정시인 경우 제주시 2명, 서귀포시 3명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는 민선 7기 출범 1년을 평가한다는 점과 1960년 상반기 출생 고위직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

체인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0년 상반기 출생 공무원 중 2급(이사관) 직위의 김창선 도민안전실장과 3급인 홍영기 부이사관(기획재정부 파견) 2명이 명예퇴임했다. 3급 직위의 공로연수 예정자는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 김익수 국회사무처 협력관, 김장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협력관,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감등해소지원단장 등 6명이다. 명예퇴임과 공로연수로 인해 최소 8명은 이번에 승진하게 됐고, 이에 따른 후속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국장 라인 중 개방형 공모 국장을 제외하면 5명은 상반기 인사

에서 임명돼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3명의 국장은 1년을 채웠다. 따라서 공석인 도민안전실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와 함께 서울본부장과 국회사무처 등 중앙부처 파견 대상자 결정에 의해 국장급 인사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일부 국장급 교체가 이뤄질 경우 연쇄이동으로 중폭 이상의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1960년생들이 모두 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감안하면 자리매움 형태의 인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정기인사와 관련 "적부특성, 업무 수행 능력, 도정 기여도를 감안한 인사배치를 하겠다. 공정하면서도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며 원래 인사가 가진 기능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혀 새로운 진용구축에 이복이 풀리고 있다. 조상윤기자



올해 12회를 맞은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가 28일 폐막 행사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 거문오름 분화구고스를 찾은 탐방객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태고의 신비' 거문오름 탐방 열기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28일 폐막
1일 탐방인원 최대 기록 연일 경신... 가족 단위 늘어

1년에 단 한 번 탐방객 제한 없이 태고의 신비를 드러내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일 이른 아침 기원제를 시작으로 9일간의 탐방 일정에 돌입한 이번 트레킹은 태풍과 비날씨로 행사 초반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폐막 전에는 1일 탐방객 기록을 연이어 경신할 만큼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거문오름의 자연을 만끽했다.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2008년 1회를 시작으로 12회째를 맞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는 올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이 함께 참여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공연을 대폭 늘렸다.

이날 오전 세계자연유산센터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폐막행사 대신 탐방객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탐방객들은 탐방에 앞서 발길을 잠시 멈추고 선출2리 주민들로 구성된 라인댄스동아리, 제주에서 활동 중인 음악밴드 시크릿코드와 재즈듀오 재스민의 공연을 즐기며 더위를 식혔다.

공연과 함께 이번 행사기간에 선출2리부녀회 등이 운영한 세계유산마을 부스와 세계자연유산제주해설사회가 진행한 자연물을 이용한 손수건 만들기 체험 부스 등에도 많은 탐방객이 몰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다. 폐막을 앞둔 27일과 폐막일인 28일에는 거문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국제트레킹 행사가 진행된 이래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1일 탐방객 최다 인원 기록을 연이어 경신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이날 거문오름을 방문한 홍성호(50·서울)씨는 "동생 가족과 함께 모두 9명이 제주에서 휴가를 즐기기에 서울에서부터 차를 운전해 목포를 거쳐 배를 타고 어제 제주에 도착했다"며 "마침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일주일간의 제주 휴가 중 첫 일정으로 거문오름을 찾았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트레킹 행사에서는 단체관광객의 탐방이 줄어든 대신 흥성호씨 가족처럼 가족 등 개별단위 탐

방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수 해설사(선출2리 전 이장)는 "지난해까지 주말에는 단체탐방객들이 많았지만 올해 트레킹 행사에서는 단체는 몇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탐방객 여행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거문오름은 28일 폐막 행사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1일 탐방인원이 450명으로 제한된다. 탐방 예약은 전화(1800-2002) 또는 인터넷(http://wnhcenter.jeju.go.kr)으로 가능하다.

표성윤기자 sjpyo@ihalla.com

제원아파트 재건축 도시계획위서 '제동'

최고 15층 14개동 752세대 신축 제주 최대 규모
동서도로 폐도 근거 제시 등 6가지 이유 '재심'

제주도내 재건축 사상 최대규모가 될 제원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1977년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대에 들어선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세대로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고 15층, 14개동 752세대로 신축하는게 끝자다. 당초 874세대로 계획했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3차례의 재심의

끝에 122세대를 줄여 통과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 도로(신광로 6길) 가운데 약 350m를 폐도하는 대신 보행로는 남겨놓고 공공기여 방안으로 노상 주차장 150면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단지 외곽의 8m, 10m 도로를 각각 2m씩 넓히고, 한라산과 바다쪽으로 다리 2개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서쪽 출입구인 흘천다리는 보행로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동서방향도로 350m 폐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도시계획위는 도로 폐도에 대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포함해 ▷폐도 시 공공기여방안 구체적 제시 ▷주거환경 개선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일조권, 소음저감 방안 등) ▷근린생활시설 규모 등 건축물 용도계획 내용 제시 ▷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재검토(교통량, 패턴 및 교량 고려) ▷주변도로변 양측 보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제시 ▷인접 블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반영(주민의견 등)하는 등의 6가지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원아파트 재건축은 승고르게 돌입하게 됐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지방세 편취 범무사' 파문 확산... 3번 /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공식 사과... 4번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1358호

2019년 제40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공고

의인 김만덕은 조선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 여성 경제인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위대한 정신을 지속가능한 제주의 정신이자 살아있는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40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p>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p> <p>추천 대상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여성" 가. 봉사 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 거주 여성 나. 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 거주 여성</p> <p>추천 자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외)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다. 시장·군수·구청장 라. 행정시장 마.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바.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사.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종 사회단체장 아. 20세 이상으로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 연서</p>	<p>제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식공고문 참조)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1부 (별지 1, 2, 3호 서식) 나. 20인 이상의 추천 연서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참고) 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조례 제7조(심사제외대상) 해당여부 확인서 (서식참고) 라. 삼반신 명함판(3cm×4cm) 사진 2매 마.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 (사진, 인쇄물 및 신문스크랩 등)</p> <p>접 수 가. 접수기간: 2019. 5. 1.(수) ~ 8. 1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kys1012@korea.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 PDF파일을 제출하되 원본은 이메일 제출 후 10일 이내 제출시 유효함 다.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064)710-2864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건설서관)</p>	<p>심사 및 수상자 결정 가. 공적사항 현장 확인 등 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상 자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시 상 가. 일 시: 2019. 10. 20.(일) 10:00(예정) 만덕재 봉황시 나.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다. 시상인원: 2명(봉사부문 1, 경제인부문 1) 라. 시상내역: 상패 및 상금(각 5백만원) ※ 김만덕기념관 3층 상설전시관 내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소개</p> <p>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064-710-2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